

# “지역 예술인 · 도민 문화 향유 확산 최선”

전북문화관광재단, 기자간담회 개최... 경영 방향 제시 · 사업 본부별 중점 추진사업 발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1일 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2022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인과의 대화를 통해 2022년 재단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3본부 체제로의 조직개편을 통한 분야별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했으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및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무대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관광정책 기반 마련, 마이스 공동마케팅 협력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각 사업 본부별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본부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전라북도예술인 민생안정지원금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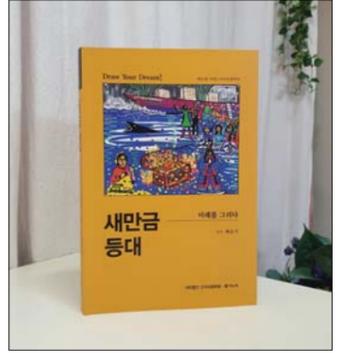
축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북도예술인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은 도내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1인에 80만원이 지급된다. 관광진흥본부는 ▲전북형 관광기업지원센터 육성(T-Lab) ▲탄소중립 ESG 친환경 전복여행 ▲미디어를 활용한 해의마케팅 ▲전북 마이스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관광진흥본부는 부안 · 고창 등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유산자원 활용 관광사업 등), 플로키움 및 팸투어 활성화, 기업참여형 ESG 전복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ESG 친환경 전복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연기획추진단은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

연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전복예술회관 기능보강 사업 등을 소개했다. 공연기획추진단은 기존의 사업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구축을 목표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취임식에서 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 전문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 예술인들과 도민의 문화 향유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라북도 문화예술 · 관광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 기조를 견지하며, 한편으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재단 임직원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새만금 꿈 · 비전 고스란히 담았다

‘재경 전북인 중심’ 신지식장학회, ‘새만금 등대’ 창간호 발간

재경 전북인들을 중심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과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원하는 ‘새만금 등대’ 창간호가 발간돼 화제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민의 정부 당시 출항 전북인사들이 뜻을 모아 출범된 전북사립들(구 신지식사회네트워크)의 사)신지식장학회를 중심으로 발간된 ‘새만금 등대’는 전라북도 및 정부 기관, 새만금개발청 등 기관 이외에도 서울장학숙, 충남장학숙, 김제장학숙 대학생과 각 분야 전문가, 도민, 출향인사들의 고향 새만금에 제대로 된 꿈과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경 전북인들을 중심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과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원하는 ‘새만금 등대’ 창간호가 발간돼 화제다.

특히 장학회는 서울장학숙과 충남장학숙, 김제장학숙 재학생을 대상으로 원고 공모전을 실시, 서울시립대 윤이빈 학생 등 16명을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선정된 글은 문화예술전문가 등 각계에서 보낸 공모 원고와 함께 ‘새만금 등대’ 창간호에 실렸다. 아울러 송하진 전북지사, 정운천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박준배 김제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 정치권에서도 격려사를 보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새만금은 20년의 물막이 공사, 성토작업, 기업유치, 중장기 계획의 확립으로 2050년 완성품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등대’는 1장 잼버리, 2장 새만금 가로등(성인 글), 3장 애니메이션 제작용 시놉시스로 창작된 전설의 새 ‘가르빙가’, 4장 대학생 46명의 글이 담긴 ‘새 역사 가로등’ 등 총 180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새만금의 꿈과 비전이 담긴 ‘새만금 등대’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 국민의 원터, 미래 먹거리는 물론 전북인의 혼이 깃든 곳으로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여 있다.

신지식장학회 김남순(현의사) 상임이사는 발간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전북의 힘을 한데로 모아야 할 때다”고 강조하고 “신지식장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로 무장

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국가와 가정에 충과 효,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며 새만금 새 역사의 주역이 되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등대’ 창간을 실질적으로 이끈 백승기(건축사) 이사는 “2023년 새만금 잼버리에는 전 세계 학생 5만 명이 방문하는데, 우리 장학회는 저개발 국가 학생들에게 글로벌 장학금을 준비해 잼버리 조직위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 이사는 “‘새만금 등대’ 출간을 위해 각계각층 100여분이 원고를 보내주셨다”며 “전문성이 있는 50여분의 글은 기획 취지 상 1집보다 2집 ‘새만금 방주’에서 출간하기로 하고 원고 보강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책 판매 수익금은 전액 잼버리에 참가하는 저 개발국가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한편 (사)신지식장학회는 매년 재경 전북인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마련,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매년 전북출신 고교 ·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400여명에게 3억 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김재훈 기자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업계획 발표... NEW아트숄 프로젝트 수립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공간을 넘어 지역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전북의 문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전당의 기획 사업 브랜드 ‘new 아트숄’은 예술 · 대중 · 지역이라는 3가지 가치를 중점으로 6대 실천 전략을 제시하며 67건의 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문화 정체기에 있던 지역

문화예술이 계속돼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아 슬로건을 ‘예술 ~ing’로 정했다. 또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해 대면 공연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대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변경 시에는 신속히 대처하는 등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6대 실천 전략은 ▲새롭게 펼쳐지는 기획사

업 ‘new 아트숄’ 시즌 지속 발전 ▲소리극 시리즈 문예회관 교류사업 유치 ▲예술로 희망을 부른다, 지역예술인 지속적인 활성화 ▲전당 내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강화 ▲도민 문화 성장 프로젝트 뉴아트숄 갤러리 ▲유아에서 노년까지 생애 주기형 예술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이다. /뉴시스

# 부안군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성료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이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창의 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붓 잡는 재미’ 시범 프

젝트를 지난 19일 석정문화관에서 선보였다. 이번 시범운영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 자원에 기반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을 목표로 한다. ‘붓 잡는 재미’는 부안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서예라는 문화유산을 토대로 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융복합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교육참가자들은 재단에서 제작한 2개의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며 5개의 서체와 필획, 결구, 장법 등을 배웠다. 이후 서예 전문가인 김연강사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과 미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창의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재단 노시용 사무국장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서예를 기반으로 부안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창의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더욱 확대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부안군민의 행복을 일상 회복과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청년예술인도 정책결정 참여”... 예술위, 청년예술TF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달부터 3개월간 청년예술TF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에 구성된 ‘예술위 소위원회 청년위원 모임’을 전신으로 하는 청년예술TF는 현재 현장소통소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 위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청년예술TF는 청년예술인이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고 예술정책의사결정 과정

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위 내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청년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예술위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